

안동중친회, 권기창 안동시장 초청 특강 개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정주민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 유치할 계획



권기창 시장

안동중친회(회장 권철환) 주최 “권기창 안동시장 초청 특강”이 9월 7일 오후 4시 안동시 안기천로 18(태화동) 안동권씨회관 2층 회의실에서 원로원, 부회장단, 감사, 자문위원 및 각 단체회장, 총무, 부녀회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참석한 내빈은 권재주 원로원 의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권숙동, 권주연

세 고문, 권기창 안동시장 부부, 권철환 안동중친회장, 권기덕, 권경웅, 권박, 권기만, 권오진, 권찬선, 권정호 원로원 회원, 권오국 전 안동향교 전교, 권정창 대중회 제례위원장, 권기수, 권기택 수석부회장, 권기호, 권중덕 부의장, 권영수 감사, 권오의 대중회 안동사무국장, 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 권재웅 총무협의회 회장, 손복영 부녀회 회장 등이다.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 묘소 참배, 회장 인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철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여름 무더위 때문에 자주 못 모셔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특히 권숙동 고문이 건강이 회복되어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시정 업무에 바쁜 가운데 안동중친회를 위하여 권기창 안동시장 부부가 참석하여 고맙다며 환영하는 뜻에서 박수를 치자”고 해서 많은 박수를 보냈다. 또 큰 행사 때마다 수고가 많은 부녀회원들에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도록 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특강에서 자신이 직접 슬라이드를 조정하면서 1시간 40분 동안 시장 취임 2년 성과와 임기 하반기 계획을 소상히 알려주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예부터 안동은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 인재의 반은 안동에 있다(朝鮮之才 半在嶺南, 嶺南之才 半在安東)는 말을 인용하면서 안동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이고 인본정신의 본향이며 인다(人多)의 고장, 뿌리 깊은 역사를 지녔다.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로서 앞으로 차전놀이, 뽕다리밟기, 음식책인 수은잡방, 하회줄불놀이 등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안동시 목성동 일대에는 성당, 예배당, 사찰, 유교기관이 한 군데 어울려 있어서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서 이곳을 종교타운으로 조성하였다고 자랑한다. 안동은 스토리가 풍부한 도시이다. 찾아오는 손님을 최대한 모시는 접빈객 문화로 음식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발달돼 있다. 제사나 큰일이 있을 때는 문어와 간 고등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안동 제비원 미륵불도 대구 것 바위처럼 유명해질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동은 앞으로 정주민구 30만 명, 경제인구 50만 명, 관광객 1천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단단히 노력하고 있다. 안동에 경북도청이 왔으나 아직까지 안동시와 예천군이 행정구역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어서 통합을 열심히 서두르고 있는데 흡수통합이 아니라 두 시군의 주민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안동시는 안동댐과 임하댐 등 2개 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개, 농작물피해, 교통 불편 등 부정적인 요인만 부각했으나 지금은 낙동강 하류지역에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해당 시도에 물값을 받는 등 정당한 보상과 안동시민들에게는 수돗물값 감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댐의 퇴적토와 녹조를 이용,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다고 했다. 안동댐과 임하댐은 애물단지라 아니라 앞으로는 보물단지라 바뀔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동은 젊은 도시로 바꾸는 동시에 어린이 도시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외지에서 어린이가 안동에 오면 친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4명 이상이 동행하기 때문에 방문객이 많아져 어린이를 위한 도시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울여름 낙동강변에 어린이 수영장과 놀장을 설치한 결과 전국에서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물놀이와 대박을 친 사실을 소개했다.

안동은 사계절 축제를 할 수 있는 도시이다. 봄에는 차전장군과 노국공주 축제, 여름에는 물 페스티벌, 가을에는 안동국제탈춤축제, 겨울에는 천연 썰매장인 안심얼음축제를 열어 1년 내내 축제로 관광객 1천만 명시대를 열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은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어 한다. 노래도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신나고 유쾌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 안동권문도 자긍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

안동시민의 관심사는 안동시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다. 총 사업비 4백45억 원을 들여 안동교육지원청 옆에서 안동권씨회관 부근까지 길이 600m 구간을 2025년 상반기에 착공, 2027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덮여있는 안기천 하천을 모두 걷어내고 서울 청계천처럼 조경사업과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권기창 시장의 특강이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권기수 수석부회장은 “오늘 시장님이 특강한 내용을 안동시내 24개 읍·면·동이나 민간단체에 순회 특강을 하면 대박이 날 것”이라며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안동권씨 1100년 특별추진위원회 능동성지조성과 관련하여 삼태사 조경사업, 능동제사 일대 보수, 시조님의 영정봉안을 할 영당(影堂) 건립, 능동제사 진입도로 확장 등을 문의했다. 이에 권 시장은 태사묘는 안동시민의 것이다. 태사묘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능동제사는 현재 보수 중이고 진입로 확장은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지 않아서 여러 면에서 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권철환 회장은 부산에서 대마(大麻)를 연구하고 있는 권오진 사장이 안동에 와서 공장을 마련, 대마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권기창 안동시장이 특강을 할 때 시장과 동행한 권용해 행정복지국장, 권용대 도시건설국장, 김현석 비서실장 등 3명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강이 끝나자 권용대 삼한벽돌 사장이 ‘안동명가김치’ 1봉씩을 참석자 전원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참석자들은 안동권씨회관 1층에 있는 ‘양반밥상’ 식당으로 이동, 불고기를 곁들여 저녁을 먹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권영창 회장, 권종숙 부회장 임명



권영창 회장은 9월 10일 14시 대중회에서 권종숙 시인을 정관 제 10조 제2항에 의거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권영창 회장은 권종숙 시인은 태사문화회 회원으로 소리꾼이자 화가이기도 한 문화예술인으로서 앞으로 대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종숙 부회장은 옛날 집성촌에 살면서 할아버지로부터 족친 모임이나 족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 그러나 딸이라서 문중 행사 등에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영역이었다.

이제 시대가 변화하여 대중회 부회장에 임명되었다. 함께 해서 너무 기쁘고 작은 힘이나마 대중회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류정(柳亭) 권종숙 부회장은 안동이 고향이며 안동고대를 졸업한 교사 출신으로 재경안동여중고 동창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재경안동시향우회 고문, 상록아트회 사무총장 등을 맡고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2024년 10월 임원 선임 및 회비 납부 내역

<임원선임>

(*24.09.10자) 권종숙 부회장(남양주, 시인·수필가·화가·소리꾼)

<임원회비>

부 회장

권용기 상임위원(대전, 기성화학)

1,000,000

합계 : 1,000,000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 권씨대중회

檢校公派 派祖 秋享祭 및 定期總會 案內



謹啓 時下

중추지절에 파친님들의 평안을 앙축하옵니다.

검교공파 파종회에서는 파조(諱 倜 10世) 추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시 : 2024년 10월 20日(陰曆9月18日 中丁日) 일요일 오전 10시

♣장소 : 경북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351 파조단소

(주소 : 경북 상주시 공검면 율곡2길 114-14)

※ 추향제 봉행 후 정기총회를 단전(壇前)에서 개최합니다.

안 권

1. 기타 현안문제 토의